

수능 코앞 고교생 코로나 확산... 대책 세워라

광주·전남 학생들 잇따라 확진
학생·교직원 전수 검사까지
수능 차질없게 강도높은 방역을



고교생 전수검사 22일 오후 학생 1명이 확진된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월3일)을 눈앞에 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은 방역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2, 7면>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 610번 확진자가 광주의 한 고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610번 확진자는 광주 607번 확진자의 자녀로 확인됐다. 607번 확진자는 광주교도소 직원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재소자에 대한 동행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학교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 980명과 교사 90명 등 107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포함됐다.

과 연계한 현장관리반을 운영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통지단계부터 수험생을 관리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을 위해 거점 병원 3곳과 10개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다.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도 마련된다. 도 교육청은 격리 수험생을 위해 총 7개 시험장에 21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 이 시험장은 수능 1주 전부터 설치된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장 학교 소독을 실시하고, 비밀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수험생의 책상에 방역 가림막이 설치된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과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최근 감염병 확산 추세,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전국 고등학교, 수능 시험장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이전에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광주 남구의 한 여고 1학년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광주 602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602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인 광주 585번의 딸이다.

또 순천에서는 고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320번(순천 137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영암군에서도 고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300번(목포 27)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 학생은 전남 270번(목포 21번) 확진자가 운영한 연기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전남 270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다.

이처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교육당국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수능 시험일인 내달 3일까지 수험생 방역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고삐를 죄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확진자의 증가 추세 등 엄중한 상황을 인식, 수능시험일 전까지 교직원이 솔선수범해 방역관리해 나설도록 당부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일반시험장(38개교)마다 유증상자용 별도시험실을 5개씩 마련하고, 자가격리자가 응시하는 별도시험장(2개교)을 운영한다. 확진자용 병원시험장인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2개 시험실(4인용)도 설치한다. 지자체 유관기관

호남권 전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내일 0시부터...수도권은 2단계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2단계 시행
3분의 1 재택근무·시차두고 출근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 호남권 전체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수도권은 총 5단계(1→1.5→2→2.5→3단계)로 된 거리두기 가운데 중간 격인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바이러스 확산세를 꺾는 동시에 겨울철 대유행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공공 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

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리지 못하고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전담을 포함한 호남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광주시 전역과 목포·여수·광양·무안(삼합읍) 등 전남 일부 지역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인근 시·군으로 바리새가 퍼져나가는 양상이다. 순천 등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영업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우선 50㎡(15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좌석 1m 거리 한 칸 띄우기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는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도 실천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불가능하다. 모임, 축제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30%만 인장이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주말과 휴일에도 광주·전남에서는 확진자가 속출했다. 광주에서는 주말인 21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휴일인 22일에는 오후 6시 현재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21일 13명, 22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현호 기자 khh@

"광주 봉선동 등 일부 투기세력 차단 필요"

투기과열지구 동단위 지정 건의

광주시가 최근 남구 봉선동 등 일부 지역에서 치솟는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택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곳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시,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단위로 지정할 경우 주택 시장 과열 정도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지정 범위를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주장했다.

광주시는 또 주택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중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겨울 추위가 온다

곡성, 오늘 아침 영하 1도

23일 곡성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3도 안팎의 추운 날씨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 영향으로 '관심' 단계를 발효하고 "22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3일 아침기온이 22일보다 5~10도 떨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1도, 구례 0도, 담양·화순·장성 1도 등이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3도 안팎의 기온분포를 보이겠으며 최고기온은 8~13도 분포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0~50km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15~30km로 약간 강하게 불 예정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11.06 - 11.30
온라인 소공연 운영 NAVER 영남 문화대축전
영호남 문화대축전
영호남 문화대축전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 가능

취등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KAIT 한국자산신탁 삼일건설 삼일루터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

[사업규모]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동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상고 21실 | 운동 및 문화회합시설 3개소 |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은 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임대인) 등 청약대상은 사업주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라 소지자(과세) 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지자의 용이한 관리·보유를 위해 '계약관리'를 사용합니다. ※ 계약일정 및 기타 사항은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일부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